

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 11. 20.(수) 10:00

## 5 분 자 유 발 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김 정 희 의 원)

##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여 현재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집행기관에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 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8년 14,984명에서  
2023년 23,347명으로 5년 새 8,363명이 늘었고,  
총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비중도  
같은 기간 7.3%에서 10.8%로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기준,  
2018년 64건에서 2023년 93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고령인구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는 울산지역 5개 구·군 중 가운데 유일하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없는 지자체로,  
관련 정책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저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반드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신속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확대를 검토하여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연령, 지원금액, 지급형태 등이 천차만별입니다.

울산의 경우, 울산시 차원에서 65세 이상인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인당 1회에 한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남 진주시, 서울시 강남구, 경기 의왕시, 전남 광양시 등은 최근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지원금을 인상하였고, 경기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지원금에 정기예금 우대금리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지역을 가려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발맞춰 우리 구 또한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 정보교육,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제공 등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전반이 스마트화되면서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고령층의 이동권이 더욱 제약받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대를 놓고도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과 더불어 스마트 정보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유관기관·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교육과 제도, 교통정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에 관한 안내 메시지를 문자로 전송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고령층의 교통정보 갈증을 해소하고, 면허반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등 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처럼 짜인 노선으로 운행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경로를 바꿔가며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시의 ‘청주콜버스’는 전국 최초로 읍·면지역에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한 이후 현재 하루 평균 1천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 전국적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교통약자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주민이 1천 원만 내면 나머지 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마실택시’가 전액 시비로 운영 중이지만, 대상지역은 4곳에 불과합니다. 청주시의 사례처럼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우리 구 역시 마실택시 확대 등 대체 교통수단 확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대는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오랜 시간 삶의 일부였던 운전대를 내려놓는 일은 큰 불편함과 심리적 상실감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보다 면밀히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